

주례사

경상대학교 명노신 교수 (2019년 9월 28일)

바라만 보아도 좋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모습을 평생 담기로 약속하는 '의미있는 시작'을 하는 신랑 백상태군과 신부 김민주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오늘의 두 사람이 있기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고 가르쳐 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일가친척, 동료, 내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의 은사로서 지켜 본 신랑 백상태군은 우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국방기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부 김민주양도 그동안 컴퓨터에서 식물유전 농학으로 꾸준히 새롭게 배우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지난 달 두 분을 제 연구실에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삶에 대한 자세와 품성이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새롭게 배우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두 사람을 이어지게 하였고, 이 복된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옛 글에 '자강불식(自強不息)'이라 했습니다. 즉 '하늘의 운행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명문대학인 청화대의 교훈으로 잘 알려진 사자성어인데, 저도 그 의미에 공감하여 제 연구실의 모토로 정하여 늘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쉬지 않는다'를 대학원생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주례를 준비하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식보다 자강의 '자', 즉 '스스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건강한 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결혼은 부모의 사랑과 건강한 자아 바탕 위에서 반쪽의 나와 또다른 나가 만나 온전한 둘의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해서 1+1은 2가 아닌 무한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자아는 겉으로 드러난 표피가 아닌 본질을 보게 하고, 화려한 말로 가득찬 거짓이 아닌, 때론 무미건조하고 덤덤하기까지 한 삶의 진실을 따뜻한 눈으로 직면하는 품성을 뜻합니다.

건강한 자아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와 부부 본인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건강한 자아는 “하마터면 너무 열심히 살 뻔”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믿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건강한 자아는 나와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아는 내리사랑으로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부모님들의 길을 이제는 부부로서 똑같은 길을 가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를 통해 저도 결혼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여정이며, 배우자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관계이며, 부모에게서 시작한 축복의 삶을 다시 후세에게 이어지도록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가 지혜로운 결혼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이 가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만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